

不健全한 인터넷 資源으로부터의 靑少年 保護 方案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rotection Methods for Students from
Inappropriate Internet Sites

朱 玲 珠*

郭 銀 純**

Joo, Young-Ju

Kwak, Eun-Soon

ABSTRACT

With the advent of internet, the modern society is enjoying the benefits of the information age. As one of undesirable side effects of utilization of internet, however, it is often mentioned that young students are helplessly exposed to inappropriate and unqualified inform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clarify the nature of inappropriate information to the younger generation and will argue for the needs of protecting the youth from inappropriate information. Especially the merits and limits of often motioned five different protective and regulatory measures are presented and analyzed, those are, establishment of acceptable use policy, active utilization of supervisory organization, promotion of Internet rating system, installation of filtering software, and legal and regulatory protection. As a fundamental means of resolving the problems, however, enforcement of systematic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promotion of active utilization of sound information, development of search engines for the youth, design of diverse filtering softwares which can be selected by users, and increased attention by parents and teachers are suggested.

키워드 : 인터넷, 불건전 정보, 청소년

1. 서 론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통신기술의 발전, 확

대와 더불어 컴퓨터의 대량보급은 정보사회의 막을 열게 되었다. 정보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및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점차 그 속도를 빨리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인간의 생활과

* 정희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 정희원, 경원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문화를 규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시간·공간의 개념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해를 때부터 해질때까지 일하는 농경사회에서의 시간 개념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는 산업 사회의 정해진 시간개념으로 변화해 왔으며 향후는 물론, 현재에도 일과 휴식의 경계선을 파괴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 시대의 시간개념으로 변화되어왔다(오증근, 1998). 공간의 개념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은 당연하다. 밭에 가야만 일을 했던 농경사회의 공간 개념은 초고층 빌딩으로 공간을 확장시킨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스템만 갖추면 집이건 사무실이건 차속이건 어디서든지 업무 처리가 가능한 무한대의 공간 개념, 혹은 Cyber Space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1994년 World Wide Web의 출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정보를 획득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도구로 각광을 받고 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전세계를 하나의 커다란 네트워크로 연결해 놓은 인터넷은 상상할 수 없이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에 접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체제이다. 정보의 최신성과 방대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접근성,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 전세계적인 상호작용 및 그에 따른 3광고, 홍보 효과 등 인터넷의 특징은 개인은 물론, 정부 기관, 기업체, 언론사, 대학과 연구기관, 도서관 등의 각기 다른 목적과 요구를 가진 사용자와 기관들을 인터넷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의 인터넷에 대한 관심도 예외가 아니다. 각급 학교와 교사들은 필요한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학교를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동료 교사와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을 공유하는 등 인터넷을 교육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도 교과학습에 필요한 정보나 자신들의 관심사에 관한 정보를 검색·활용하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자신의 생각과 관심사를 표현하고, 대화방 및 동호회 활동에 참가하

는 등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동참하고 있다.

인터넷 활용이 생활화 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환경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20세 청년이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남한 사회를 비하하는 내용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 일이 있었으며,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인터넷 상에서 음란 사진과 음란 소설 등을 판매하다 적발, 구속되는 등 인터넷과 관련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감독, 관리 및 관련 법규 제정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동아일보, 981104; 동아일보, 980513).

호기심이 강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아무런 준비나 대책없이 음란물이나 폭력물에 접근하고, 비윤리적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방이나 욕설을 나누게 된다면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된다. 또 가치관에 혼란이 오게 되면 이는 건강한 자아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왜곡된 시각과 호기심은 불건전한 자원과 행위 등을 모방하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터넷 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 행위를 부추길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사회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 어릴 때부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주영주·이광희, 1998).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정보 자원으로부터 벗어나 건전하고, 적절한 정보를 취사, 선택,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 보다도 먼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 이에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보다 긍정적이며 적절한 인터넷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고 시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불건전한 자원

에 대한 접근 통제와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고찰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인터넷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는 데 있다.

2.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

2.1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 개념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inappropriate resource on the internet)이란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음란한 내용, 폭력과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정치적으로 불온한 내용을 담은 웹사이트 및 전자메일, 유즈넷 뉴스그룹, 대화방과 기타 바이러스 유포 행위 및 스팸 메일, 비방이나 욕설 등 저속한 언어사용, 지적 재산권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이 포함된다. 이는 불건전한, 또는 유해한 인터넷 정보라고도 불리는데, 실질적으로 '불건전'을 규정하는 데에는 다소간의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통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공공의 안녕 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국가경제 질서를 파괴하거나 경제발전에 위해로운 행위, 범죄행위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을 불건전한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미국의 경우에는 1996년 2월,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인터넷 자원을 규제한 최초의 법률인 통신풍위법(CDA; Communication Decency Act)을 제정하고 "예술적, 문학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 없이 단순히 음란 취미를 자극하고 명백히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웹사이트"를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불건전한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문화일보, 980521).

2.2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 보급 현황

현재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은 자료의 방대함과 즉각적인 정보의 추가, 삭제, 게시가 가능한 융통성과 유동성, 정보의 국경 없는 유통 등 인터넷의 본질로 인해 공식적인 집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 적절, 불건전 여부의 판단 기준도 사회적, 역사적, 개인적으로 견해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이 불가능한 형편이다(성동규, 1998). 그러나 1998년 12월 현재, 인터넷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자체 파악하여 차단하고 있는 불건전 자원 목록을 살펴보면, 대략 100,000여 개의 웹사이트와 100여 개의 유즈넷 뉴스그룹, 기타 음란 대화방 등이 인터넷상에 불건전하게 존재하고 있다(<http://www.cyberpatrol.com/>; <http://www.rain.org/~solidoak/cybersit.htm>). 건전한 인터넷 자원의 대부분은 음란물인데, 음란 사이트에는 주로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 음란 소설 등이 게재되고 있으며, 유료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 폭력물을 들 수 있는데, 주로 폭력의 사진이나 동영상, 폭력 충동을 자극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텍스트 등이 가미되어 있으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게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는 1997년 인터넷 누드모델 이승희의 선풍적 인기와 함께 음란 사이트를 비롯한 불건전자원들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때까지는 각종 규제로 인해 노골적인 표현은 자제된 형태였다. 본격적인 한국형 음란 사이트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초로, '사이버 조선', '한국섹스사이트 총집합' 등 약 20개의 사이트가 개설되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하여 물의를 빚었던 '빨간 마후라'의 동영상, 인기 연예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 여관, 비디오방,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한 몰래 카메라, 근친간 또는 사제간의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 소설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중앙일보, 980514).

이를 계기로 1998년 7월 이후, 인터넷의 불건전 홈페이지에 대한 검찰 및 정보통신윤리위

원회, 경찰청 컴퓨터 수사대의 단속이 확대되어, 불건전한 자원은 적발 즉시 폐쇄·조치되고 있으며, 개인 홈페이지를 유치하고 있는 정보제공 업체(ISP)에서도 자체적으로 고객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현재 국내 인터넷 서버 내의 불건전한 자원의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형편이다(전자신문, 980703). 그러나, 인터넷에 음란물을 전파하는 비윤리적인 사용자들은 수시로 주소를 바꾸고 있으며, 심지어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는 등 관계 당국의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2.3 청소년 보호 방안의 필요성

정보화는 사회 각 분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는 정보화로 인한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1998년 7월 전국의 18개 중·고교의 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한 'PC통신과 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 유통 및 윤리의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38.6%가 음란, 폭력 정보에 접촉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14.5%가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접촉했다고 밝혀,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려주었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8).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모방심과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접하게 되면, 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다시 음란물을 보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된다. 또 음란물에서의 빈번한 접촉은 음란중독증(Porno Addiction)으로 진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음란, 폭력물 등의 불건전정보는 가치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에게 해악을 미쳐 올바른 사회관이나 윤리관의 정립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해악이 되고 있다.

폭력 정보의 경우에도, 폭력 성향을 강화하고, 폭력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직접 폭력 행위를 실행해보

거나, 폭력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미화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외에도 자살에의 유혹이나 바이러스 유포, 사제 폭탄 제작법 소개 등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충동적으로 혹은 호기심에 의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불건전한 행위를 하게 만드므로 계몽과 사전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에 대한 통제는 실로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다. '불건전'하다는 판단은 매우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는 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창작된 표현물은 세가지 경우에 규제를 받게 되는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정치적으로 불온한 표현, 음란한 표현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불온한 표현과 음란한 표현의 경우, 타당한 기준 없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통제되기 쉽고, 표현의 자유, 지적 자유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조광희, 1998).

그러나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으로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성인용 잡지나 기타 영화나 비디오테이프의 경우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인터넷 상에서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자원에 접근하는 것에도 같은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Serim & Koch, 1996). 이런 의미에서,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의 생산과 배포를 통제하는 것, 불건전한 자원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고, 보다 교육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겠다.

3.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

현재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

고 있다. 즉 학교 및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주도가 되어 벌이는 캠페인 형식의 관리와 감시 방안이 있는가 하면 법적 규제를 통한 통제 방안 및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통제와 차단 방안 등도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들은 제각기 강점과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한 방법이 절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3.1 인터넷 이용 지침의 설정

3.1.1 인터넷 이용 지침의 개념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각급 학교나 공공도서관, 교육청 등에서는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지침(Acceptable Use Policy: AUP)을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인터넷 이용지침이란 학생들이 적절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합의한 명문화된 방침으로 인터넷 자원의 적절한 이용 범위, 인터넷상의 행동 규칙, 접근 권리 및 방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 등이 포함된다. 학교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터넷 이용 지침을 따를 것을 서약해야 한다(Serim & Kock, 1996).

현재 미국의 각급 학교와 교육청에는 각 기관의 특성을 배려한 독자적인 인터넷 이용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강제성을 띠기 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이용자의 양심에 맞기고(honor system)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인터넷 환경을 지원하는 경우가 한정적이므로 인터넷 이용지침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편이나, 컴퓨터 실습실 사용을 위한 컴퓨터 이용지침에 인터넷 이용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3.1.2 인터넷 이용 지침의 내용 및 현황

인터넷 이용 지침은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이용에 관한 규범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인터넷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 또 가치있고 건전한 자원을 검색하기를 격려하며, 책임있는 행동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을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과 능력을 길러 준다.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한 강제적인 검열 방식에 비해 학생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며,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의 기술적, 윤리적 측면을 지도하며, 올바른 자료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의의가 있다(Carter, 1998).

인터넷 이용 지침은 개별 학교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는 이용지침의 정의와 목표, 이용자의 권리 및 책임, 위반시의 벌칙, 학부모의 동의 등 4가지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인터넷 이용 지침의 첫 부분에는 인터넷 이용 지침의 정의와 목표가 제시되며, 이어서 인터넷 이용 지침의 필요성과 취지, 인터넷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기술들이 소개된다. 권리 및 책임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준수해야 할 인터넷상의 행동, 언어 사용, 내용, 보안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한다. 인터넷상에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말아야 할 행동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인터넷 이용 금지, 관련 과목에서의 감점 처리 등이 주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서명난이 제시된다(Palgi, 1996). 인터넷 이용 지침에 서명한 학생들에게만 인터넷 이용 지침이 적용되며 인터넷 이용 지침에 서명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의 인터넷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3.1.3 인터넷 이용 지침의 효과 및 한계

인터넷 이용 지침은 인터넷 자원에 대한 학교 차원의 규칙이며, 공식적인 교육을 통하여 불건전한 자원에 대한 경고 및 사용 지도를 하며, 학부모에게도 인터넷상의 불건전한 자원에 대한 관심과 각성을 유도한다는 의의도 있다(Bland, 1997). 그러나, 인터넷 이용 지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많다. 현재 우리 나라

의 경우, 아직까지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학교가 그다지 많지 않고, 있다고 해도 제한된 실습실에서 제한된 시간과 활동에 불과하므로, 학교에서의 인터넷 사용보다는 가정에서의 인터넷 사용이 문제가 되는 형편이다. 또, 우리 나라 실정에는 서명을 하고, 선서를 하고, 책임을 부여받는 양심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낮은 편이다. 또, 가정에서의 인터넷 사용을 지도하기 위해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터넷 이용 지침의 한계이다. 인터넷 이용 지침은 학교에서의 인터넷 사용만을 규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인터넷 이용 지침은 인터넷의 불건전한 사용을 경고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교라면 꼭 있어야 할 교칙과도 같은 존재이다. 인터넷 이용지침이 우리 나라 상황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명을 통한 양심제도보다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합의하에 만들어진 인터넷 이용 지침을 바탕으로 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긴밀한 의사소통 체계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3.2. 정보감시단체의 활동

3.2.1 정보감시단체의 개념

인터넷상의 불건전한 자원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 등이 주도가 되어 불건전한 인터넷 정보를 추방하고, 교육적으로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시민 단체들이 생겨났다. 이와 같은 정보감시단체는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불건전한 정보나 범죄 행위를 신고하고, 음란물 등을 감시하는 경찰의 역할을 하는 적극적인 단체를 이야기 한다. 둘째는 불건전한 인터넷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법이나 관련 사이트를 알려주는 등 긍정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는 보다 소극적인 단체이다.

3.2.2 정보감시단체의 기능 및 현황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정보감시단체로는 Cyberangels, Smartparent, Netparents, Kidscampaigns, Savvy Parent Online, Parents News 등 10여 개가 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의 학부모 정보감시단과 청소년 문화연구소 산하의 청소년 정보감시단이 있다. 이들 정보감시단체들은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건전한 정보의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소식지, 관련 서적 발간,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Cyberangels(<http://www.cyberangels.org>)

Cyberangels는 199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되었으며 1998년 12월 현재 60여 개국의 5,0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들의 대부분은 학부모이며, 네티켓의 부재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나 해킹 등의 인터넷 범죄, 음란물 유통 등의 인터넷의 폐해를 없애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불건전한 사이트를 찾아내어 경고하고, 인터넷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아 법적 해결에 나서며, 추천할 만한 인터넷 사이트 8,000개의 북마크 구축, 법적 규제 관계의 홍보 및 세미나,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 지도를 위한 지침 제공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 Smartparent(<http://www.smartparent.com/>)

Smartparent는 인터넷 검색 도구 개발사인 야후(<http://www.yahoo.com>)와 인포시크(<http://www.infoseek.com/>) 등이 후원하는 학부모 단체로서 정보 감시의 역할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이며 흥미있는 인터넷 이용을 유도하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Smartparent는 학생들이 불건전한 자원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자원에 접근하도록 이끄는 방법, 차단 소프트웨어,

인터넷 관련 문제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동물원이나 박물관, 교육정보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유용한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한다.

3) Netparents(<http://www.netparents.org/>)

Netparents는 1997년 미국의 정부기관 40여 곳과 비영리단체, 컴퓨터 관련업체 등이 인터넷의 불건전한 자원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1998년 9월부터 실시한 American Links Up 캠페인으로 유명하다. 학부모가 컴퓨터 지식을 알아야만 어린이들의 올바른 컴퓨터, 인터넷 사용을 지도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250여 차례의 전국 규모의 행사와 TV,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계몽활동을 벌이고 있다. Netparents는 이외에도 인터넷 상의 안전 수칙의 제공, 바람직한 인터넷 사이트의 소개 등의 상시 활동을 하고 있다.

4) 학부모 정보감시단(<http://cyberparents.icec.or.kr/>)

학부모 정보감시단은 1998년 9월 PC통신과 인터넷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정보의 유통을 감시하고, 통신 예절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우리나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의 단체로 현재 100여 명의 학부모 및 예비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전화를 통한 불건전 정보 유통 실태 조사, 성관련 정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벌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와 만화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홍보하고, 단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공익 사업도 하고 있다.

5) 청소년 정보감시단(<http://cyc.youth.re.kr/>)

청소년 정보감시단은 1997년 7월 창단된 PC통신과 인터넷 공간에서 청소년 스스로 올바른 정보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발적인 청소년 봉사 모임으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산하 단체이다. 현재 회원이 400여 명이며, 사전교육과 발대식, 동아리 활동, 소식지 발간 등의 회원 활동을 바탕으로 불건전한 정보의 신고,

올바른 정보문화 정착 캠페인, PC통신 상의 바른말 사용과 음란, 욕설 대화 지양과 같은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3.2.3 정보감시단체의 효과와 한계

정보감시단체는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의 유통과 확산을 막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근간이 된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불건전한 자원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조치 방법에 강제적인 구속력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법적 규제나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다른 규제방법들에 비해 뒤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학부모들이 컴퓨터와 인터넷 테크놀로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감시 방법과 방향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며, 국가 주도하의 관련 단체에 머무르게 될 위험성도 있다. 정보감시단체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우선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정보감시단체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만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3.3 인터넷 자율등급제의 활성화

3.3.1 인터넷 자율등급제의 개념

인터넷 자율등급제(Internet Rating System)은 영화나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 적절한 시청 대상자의 수준을 명기하는 것 처럼 인터넷 상의 정보 첫머리에 음란, 폭력성 따위의 수준과 강도를 나타내는 등급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강제적인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등급이 높은 성인용 정보를 보려면 비밀번호를 써넣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불건전한 자원에 접속하는 일을 막아줄 수 있다(Mather, 1996).

1995년, 미국에서 통신품위법(CDA)이 제출되었으나 인터넷 자원에 대한 법적 규제를 반대하는 인터넷 정보 제공자(ISP)들 사이에서 스스로 등급을 매겨 자율적으로 인터넷 자원을 정화하는 취지에서 인터넷 자율등급제가 시작되었

다. 인터넷 자율등급제는 인터넷 상의 자원에 등급을 표시하고, 등급에 따라 정보를 선별해주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자원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자율등급제 중에는 미국의 RSAC(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사의 RSACI(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on the Internet)의 등급과 SafeSurf Organization의 SafeSurf가 대표적이며, Micro Soft사의 Internet Explorer와 Netscape사의 Navigator 최신 버전에는 이러한 인터넷 등급에 따라 내용을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3.3.2 인터넷 자율등급제의 기능 및 현황

RSACI와 SafeSurf는 불건전한 내용에 대한 자체 등급 기준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 상에서 원하는 자율등급제를 선택,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등급제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문서(html)가 기술 표준인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http://pics.microsys.com/>)를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PICS는 1996년 9월 미국의 사회단체인 W3C가 정한 기술 표준으로 인터넷 문서 작성시 포함해야할 등급 정보의 포맷과 통신 프로토콜 등을 규정한 것이다.

RSACI(<http://www.rsac.org/>) 등급은 섹스, 신체 노출, 말투, 폭력의 각 분류 항목에 대해 0~4의 등급 기준을 가지고 있다. 섹스의 경우, 0등급은 '없음', 1등급은 '정열적인 입맞춤', 2등급은 '옷 입은 상태에서의 성적교감', 3등급은 '절제된 성적교감', 4등급은 '노골적인 성행위' 등으로 등급이 높아질수록 표현의 강도가 심해진다. 반면 SafeSurf(<http://www.safesurf.com/>)는 종교 모독(profanity), 이성애(heterosexual themes), 동성애(homosexual themes), 누드(nudity), 폭력(violence), 마약 사용 미화(glorifying drug use) 등 9개 항목에 대해 9단계의 등급 기준을 제시한다.

Micro Soft사의 웹 브라우저인 Internet Explorer는 4.0버전부터 내용 관리자를 통해 RSACI 등

급이나 SafeSurf 등급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을 하면 그 등급 내에서 허용되는 웹사이트에만 접근이 가능하고, 그 밖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가능하다. Netscape사의 Navigator의 경우, 4.5버전에서 NetWatch 메뉴를 추가해 RSACI 등급과 SafeSurf 자율등급제를 지원하는데, 내용 제공자가 적용한 등급에 따라 성인용 언어, 폭력, 외설물 등을 포함한 사이트의 접근에 대한 경고를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접근이 가능하다.

3.3.3 인터넷 자율등급제의 효과 및 한계

인터넷 자율등급제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쉽게 인터넷의 불건전한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다. 불건전한 자원에 대해 경고를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접근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므로,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한 무조건적인 차단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통제 방안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자율등급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회의론을 느끼게 한다.

첫째, 전세계의 수많은 인터넷 자원을 일일이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날마다 갱신되는 수많은 홈페이지와 문서, 파일 등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둘째, 등급이 없는 정보들은 없는 정보로 취급되거나 통제될 염려가 있다. 즉 PICS의 표준을 따르지 않고 제작된 홈페이지의 경우, 등급이 없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적절하다 하더라도 차단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PICS를 따르지 않고 있고, 외국의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PICS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고 메시지를 보고, 비밀 번호를 입력해야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셋째, 등급 기준은 각국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별 문제되지 않을 '보신탕' 관련 정

보가 외국에서는 동물 학대 정보로 비쳐질 수도 있어 차단될 수도 있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등급 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인터넷 독과점 기업이 참여한 인터넷 자원의 선별과 차단을 통해 독과점이 더욱 더 견고해질 수 있다. Micro Soft사와 Netscape사가 인터넷 자율등급제를 채택, 지원함에 따라 두 회사의 독과점을 더욱 지지하는 결과가 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 자율등급제는 초기 구축 단계로 아직까지 대부분의 인터넷 문서가 PICS에 따라 제작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인터넷 자율등급제는 많은 한계점이 있지만, 인터넷 자원들이 자율등급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국제적인 협의에 따른 타당한 등급 기준이 제시된다면, 불건전한 자원을 경고, 통제하는 가장 쉽고, 편리하며 저렴한 방식이 될 것이다.

3.4.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3.4.1 차단 소프트웨어의 개념

인터넷상의 차단 소프트웨어(filtering software)는 특정한 내용의 정보를 여과하거나 차단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가정, 학교 또는 도서관 등에서 학생들이 음란물이나 폭력, 도박, 마약 사용 등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웹사이트나 뉴스그룹, 채팅 등으로 접속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Mather, 1996). 전세계 어린이들을 음란물에 쉽게 접근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 세계 최초의 차단 소프트웨어인 Surf Watch가 만들어진 이래, 20여종의 소프트웨어가 개발,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산원이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NCA패트롤(NCApatrol) 외에 상업적인 소프트웨어도 출시되고 있다(한겨레신문, 971217).

3.4.2 차단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현황

차단 소프트웨어의 차단 방식은 크게 두 가

지로 대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미리 수천 또는 수만개의 불건전한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검색하여 접속을 차단하는 사이트 기반 차단(Site-selected blocking)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섹스', 'nud' 등의 낱말을 검색해 차단하는 주제어 차단(keyword blocking)방식이다(Munro, 1998).

초기의 차단 소프트웨어에서는 주로 주제어 차단 방식을 사용했다. 이것은 섹스(sex), nud(nude), 유방(breast) 등 불건전한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주제어가 들어간 모든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교육(sex education)이나 유방암(breast cancer), 동성애에 있어서의 권리(gay right)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로의 접근까지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사이트 기반 차단방식이다. 사이트 기반 차단방식은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 또는 관련업체에서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접속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Rosenfeld & Holland, 1994).

현재 전세계적으로 Cyber Patrol, CYBER-Sitter, Net Nanny, SurfWatch 등 20여 종의 차단 소프트웨어가 가정, 학교 및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997년 9월 한국전산원에서 개발한 NCApatrol을 정보통신유통위원회에서 각급 학교와 학부모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넷아거스(Net Argus), 수호천사, 나침반 등의 차단 소프트웨어가 개발, 시판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차단 소프트웨어는 불건전한 사이트를 세분화하여 교사 또는 학부모가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부가적으로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접속한 사이트의 기록을 제공하거나, 추천할 만한 사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각 차단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yber Patrol(<http://www.cyberpatrol.com/>)

Cyber Patrol은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용 소프

트웨어 및 CD-롬 개발, 판매사인 The Learning Company(TLC)가 판매하는 차단 소프트웨어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불건전한 자원으로의 접근과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용을 관리한다. 누드, 포르노 등에 관한 CyberNO 목록을 구축하여, 교사나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통계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며, 추천할 만한 사이트를 담은 CyberYES 목록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용을 유도한다. 또, 대화방에서의 불건전한 행동을 감시하는 ChatGuard 기능도 가지고 있다.

2) CYBERSitter(<http://www.rain.org/~solidock>)

CYBERSitter는 Solid Oak Software사가 제작한 차단 소프트웨어로 불건전한 웹사이트, 뉴스그룹 및 대화방에 대한 차단을 지원한다. 단어(word) 중심이 아니라 구절(phrase)을 중심으로 그 불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사나 학부모는 학생들이 불건전한 자원에 접근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차단할 것인지, 경고하고 차단할 것인지, 아니면 경고만 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게 고안되어 있다.

3) Net Nanny(<http://www.netnanny.com/>)

Net Nanny는 Net Nanny Software International사의 차단 소프트웨어로 웹사이트와 뉴스그룹, 대화방 외에도 전자메일과 개인 정보에 대한 차단도 지원한다. 또한, 회사에서 제공한 불건전한 사이트 목록 이외에도 학부모나 교사가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사이트를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4) NCApatrol(<http://www.icec.or.kr/>)

NCApatrol은 1997년 9월 한국전산원이 개발한 한국형 차단 소프트웨어로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각급 학교와 학부모에게 무료로 보급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내부의 불건전 사이트 목록을 통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5) 넷아거스(NetArgus; <http://www.plustech.co.kr/>)

넷아거스는 플러스기술주식회사가 개발, 판매하는 한국형 차단 소프트웨어이다. 학교나 공공도서관, 인터넷 PC방,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다. 관리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lan으로 연결된 모든 학생용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 순위 및 인터넷 사용내역을 알 수 있어 실시간 감시와 차단이 가능하다. 음란, 폭력, 전신누드, 도박, 마약, 해킹 등 11개 유형의 유해 정보 3만 2천개 사이트를 도메인 주소로 차단하며 시간대별로도 차단이 가능하다. WWW, FTP, TELNET, NewsGroup 등을 통제할 수 있으며 가격은 68만원 수준이다. 차단 방식도 경고와 함께 화면이 차단되는 방식, 자동으로 홈페이지로 돌아가게 하는 방식 및 차단과 동시에 추천 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 등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플러스기술주식회사는 가정용의 저렴한 수호천사와 기업에서의 인터넷 사용 현황과 비업무적인 인터넷 사용을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나침반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특히 수호천사의 경우, CD-ROM으로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부모들이 설치해 두면 자녀들은 설치여부를 알아 차릴수가 없고 반드시 CD-ROM이 있어야 삭제 가능하다.

3.4.3 차단 소프트웨어의 효과 및 한계

차단 소프트웨어는 학생들이 인터넷상의 불건전 자원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학교나 기관 또는 개인의 취향과 용도에 맞게 차단 내용과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사용 시간 제어 등 부가적인 관리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제한점도 가지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일종의 검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적 자유(intellectual freedom)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유로 그 사용을 반대한다.

첫째,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검열 행위가

다. 즉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누구든지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 자유의 위배된다.

둘째, 인터넷 상의 모든 정보를 일일이 검색, 검토하여 적절, 불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적절한 정보까지 차단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면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경우에 따라서 성교육(sex education)이나 유방암(breast cancer) 등 유용한 정보까지도 차단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넷째, 오히려 불건전한 정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불건전한 자원의 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몰랐던 사이트에 접근하게 되는 등 역으로 불건전 자원을 찾아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사용자에 따라 오용될 염려가 있다.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사람에 따라 특정 단어가 들어간 모든 사이트를 차단할 수도 있으므로, 설치자의 생각과 같지 않거나 불리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미국도서관 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는 공식적으로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Annichiarico, Berry & Bryant, 1997). 그러나, 도서 및 기타 매체들의 경우에도 컬렉션 선정 지침에 따라 음란물을 비롯한 불건전 매체들을 선정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겉절이라 보기보다는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한 지도의 측면이 강하다(Burt, 1997).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현재의 상황에서 불건전 인터넷 자원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차단 소프트웨어를 선정할 때는 차단 방식과 차단하고 있는 사이트의 수, 차단 목록의 업데이트의 주기, 사용자 조절 기능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 법적인 규제

3.5.1 인터넷 자원 법적 규제의 개념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가장 통제력이 강한 방안은 법적인 규제를 통해 인터넷 자원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는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을 만들어 유포시키는 행위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는 자국의 문화와 역사, 가치관 등에 따라 나름대로의 기준에 맞는 인터넷 자원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아직까지는 인터넷 자원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안이 있기보다는 PC통신이나 컴퓨터, 또는 영화, 비디오와 같은 유사 범주 법안에 따라 규제를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인터넷 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며, 전화 정보 및 PC통신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등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최근 한 20대 청년이 북한을 찬양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현직 교사가 음란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인터넷과 컴퓨터 범죄에 대한 단일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내외경제신문, 980702).

3.5.2 인터넷 자원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현재 우리 나라에서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 의거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 요구와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벌칙 부과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산망의 개발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고, 전산망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정보 사회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공공의 안녕 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국가경

제질서를 파괴하거나 경제발전에 위해로운 행위, 범죄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 법시행령을 따르며,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하는 내용,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시정 요구, 경고, 정보 삭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95년 4월, 정보통신부 산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설립되어 인터넷 자원에 대한 심의 및 관련 조치를 집행하고 있으며, 1997년 8월에는 경찰청 컴퓨터 범죄 수사대가 발족되어, 인터넷의 음란, 폭력물 배포에 대한 검색, 단속을 전담하고 있다.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5년 4월,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정보사회를 맞이하여 불건전 정보 유통을 막고,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음성정보, PC통신, 인터넷 자원 등에 대한 심의 및 시정 요구 조치, 불건전정보 신고센터 운영 등 건전한 정보통신문화 확립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인터넷의 자원보다는 음성정보서비스와 PC통신의 불건전한 자원에 대한 규제가 주로 취해지고 있으나, 점차 인터넷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불건전 정보 유통 절제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 홈페이지(<http://www.icce.or.kr>)를 개통하고, 계간 소식지인 '정보통신윤리'를 발간하고 있다. 또 한국전산원이 개발한 불건전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NCAPatrol'을 무료 배포하며, 관련 공청회 및 불건전 정보 신고대회를 개최하며, 학부모 정보감시단 활동을 지원하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의 확산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컴퓨터 범죄수사대의 활동

경찰청의 컴퓨터 범죄수사대는 1997년 8월,

컴퓨터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검색 및 단속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에 대한 24시간 검색 활동을 통하여 해킹, 바이러스 유포, 음란 사이트 운영 등 전문적, 기술적 범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인터넷 전용회선과 근거리통신망(LAN) 등 각종 최신 컴퓨터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보강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및 음란물 배포 등 인터넷의 불건전한 자원들을 검색, 단속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들에 대한 컴퓨터 범죄 수사대의 적발, 조치 사례를 보면, 1998년 상반기에만 인터넷 유료 음란 사이트 운영사범 6명의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판매자, 사이버 치한 등 총 177명의 음란, 복제물 배포사범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25명을 구속, 90명을 불구속시켰다(세계일보, 980620).

미국의 경우, 1996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자원에 대한 규제를 실시한 통신품위법(CDA: Communication Decency Act)에서 외설적이고 음란한 정보를 웹사이트나 다른 어디에서도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다고 규정, 규제를 하였으나. 1997년 6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품위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게 되었다. 1998년 10월 이를 보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청소년 온라인 보호법(COPA: Child Online Protection Act)을 하원에서 통과시켜 음란 인터넷 사이트에 미성년자를 가입시키는 사람, 미성년자가 음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사람에 대해 5만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였다(중앙일보, 981008; 동아일보, 981011). 그러나 최근 COPA는 연방판사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음으로써 "보호라는 명분으로 장차 어린이들이 온전히 물려받게 될 표현의 자유를 침식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법의 시행을 봉쇄하는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다(중앙일보, 990203).

일본에도 인터넷의 불건전한 자원에 대한 조치로 1998년 5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어린이 포르노 처벌법안’을 국회에 상정, 현재 심의 중에 있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8c).

3.5.3 법적 규제의 효과 및 한계

법적 규제는 청소년을 부적절한 인터넷 정보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방안으로,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들을 배포하는 비윤리적 사용자에 대한 유일한 처벌 방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1998년 7월 이후, 인터넷 자원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자 몇몇 IP에서는 자신들의 정보를 자진 폐쇄하고, ISP에서는 개인 홈페이지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 심마니, 야후 코리아 등의 검색사이트 운영 업체들도 등록을 의뢰하는 홈페이지의 심사를 강화하고, 음란사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만드는 등 불건전한 자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그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전자신문, 980703).

그러나, 인터넷 자원에 대한 법적 규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많은 한계와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표현의 자유와 지적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심의, 검열이라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불건전성’의 판단 기준도 자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자원의 법적 규제와 검열을 반대하는 단체들도 생겨나, 가상공간 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 EE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http://www.eff.org>), 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http://www.epic.org>) 등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법적 규제에 반대하여 홈페이지에 파란 리본 그림을 삽입하는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파란 리본 캠페인(The Blue Ribbon Campaign for

Online Free Speech)’ 이벤트 등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http://kpd.sing-kr.org/cuac/>)가 활동 중이다.

둘째, 법적 규제의 구속력은 국가 범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국외에서 제자가된 불건전한 자원이나 그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없다. 국내 법은 국외의 불건전한 자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으며, 국외의 불건전한 자원에 대한 자국민의 접근을 막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외국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한국형 음란 사이트가 개설되기도 하고, 국내 거주자가 외국의 인터넷 서버에 불건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교묘히 법망을 벗어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국내의 KREN, KREONet, HANA, KORNET 등에서 해당 도메인으로의 모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회적인 접속 방법이 많아, 실효가 없는 형편이다(조선일보, 981202.).

셋째, 인터넷 자원의 방대성과 빠른 변화로 인하여 모든 자원을 검토하여 불건전한 자원을 색출해내는데 한계가 있다. 인터넷 자원은 그 수가 거대하고, 도서나 영화, 비디오처럼 고정성 있는 자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가, 삭제, 수정 등의 갱신이 가능한 자원이다. 제대로 된 인터넷 자원 검색을 위해서는 모든 자원을 주기적으로 살살이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대부분의 불건전 홈페이지 개설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수시로 주소를 바꾸는 등의 수법을 쓰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세계일보, 980514).

인터넷 자원에 대한 법적 규제는 많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지만, 불건전 자원에 대한 유일한 강제적 통제방안이며, 불건전 자원의 위험성을 알리고, 불건전 자원을 만들거나 유포시키는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자원에 대한 법적 규제가 더욱 더 현실화되어, 효과적으로 불건전 자원을 검색, 단속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불건전한 자원에

대한 구체적이며 논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세계 각국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불건전 인터넷 자원이란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 폭력물 등 교육적으로 유해한 웹사이트, 전자우편, 유즈넷 뉴스그룹, 대화방 등을 의미한다. 현재, 정확한 추산은 불가능하지만 100,000여 개의 웹사이트, 100여 개의 유즈넷 뉴스그룹 등 교육상 적절하지 못한 자원들이 인터넷에 존재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개방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이들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에 접근하게 되면, 호기심과 모방심, 왜곡된 편견 등을 가지게 되는 등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부모와 교사는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은 인터넷 이용지침을 제시, 정보감시단체의 활동,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 인터넷 자율등급제를 이용 및 법적 규제 방안 등 5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각 방안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다양한 보호 방안을 놓고 볼 때, 우리 나라 현실에 맞추어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겠다.

첫째, 불건전한 정보를 골라 강압적으로 접근 못하게 제제를 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보다는 청소년 스스로가 적절하며, 건전한 정보를 취사 선택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체계적인 정보화(information literacy)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윤리 교재를 개발하여 청소년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의 개념과 이들 자원을 접했을 때의 대처 방안은 물론, 통신예절 및 컴퓨터 윤리 등에 대해

공식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컴퓨터 관련 교과과정의 경우, 컴퓨터 활용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고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의 폐해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루고 있지 못하다.

둘째, 법적 규제나 학교의 이용지침 등을 통한 부정적인 접근 금지 방법보다는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긍정적 활동을 유도한다. 규칙이나 지침의 준수만을 강요하는 억압적 교육 방식은 청소년들의 반발심을 낳고, 오히려 불건전한 자원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반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가치 있는 자료들을 발굴하여 활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세계의 친구들과 전자메일을 통해 통신하는 등의 건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긍정적 활동 방면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전한 사이트의 리스트 소개, 추천 사이트 활용 감상문 수상, 우수 사이트 경진대회, 기념식, 전시회, 학술세미나, 시연, 초청강사 강의, 홍보책자 발간 등 다채로운 행사와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셋째, 차단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자율등급제 등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통제 방안을 적용할 경우, 그 등급의 선택권을 각급 학교나 학부모에게 맡긴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개인마다 각자가 처한 현실 상황과 환경, 가치관 등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 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차단 소프트웨어의 선택도 각급 학교나 각 학부모가 자신의 환경이나 가치관에 맞추어 선택,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넷째,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터넷 활용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 및 학부모가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법의 인지는 물론, 풍부한 건전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갖추고 있어 긍정적인 지도가 가능해야 한다.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의 통제에 있어 교사, 학부모가 청소년의 컴퓨터, 인터넷

이용을 통제, 유도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큰 취약점이 되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가 먼저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에 대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권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용의 검색 도구를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자원에 접근하는 기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 관련 기관 및 정보감시단체에서 청소년에 알맞은 자원을 추천한 사이트들을 링크한 북마크와 검색 도구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각급 학교와 가정에서도 수준에 맞는 우수한 북마크 및 검색 도구를 개발, 선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여섯째, 국가간의 경계가 없는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불건전정보의 폐해가 세계 각국의 공동문제가 되어감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제간 정보교류를 통한 연구협력이나 인터넷 자율등급제의 공동 시행 방안 검토, 불건전정보 규제 사례와 동향에 관한 정보교류 등의 구체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OECD, EU등이 추진하는 국제간의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우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사이버스페이스 법적 틀에 관한 아·태지역 전문가회의'에 적극 참여(정보통신부, 1998)하는 등 정보통신윤리 국제협력 체제 구축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박승수(1998). 인터넷 기초 강좌 (<http://cis.ewha.ac.kr/~w3master/internet/>)

성동규(1998). "음란물에 대한 세부 심의기준안-더욱 탄력적인 규제방법이 필요". 『불건전정보 심의 기준 개선에 관한 공청회음란물심 의기준을 중심으로』. 서울:정보통신윤리위원회

오증근(1998). "정보사회와 여성인력". 『여학생 정보화 능력 신장방안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멀티미디어 교육원.

주영주, 이광희(1998). "컴퓨터 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교육학회 논문지』 제2권 제1호

정보통신부(1998). 『1998 정보화에 관한 연차 보고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1998a), 『국내 각 심의기관의 음란물에 대한 심의기준』. 서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_____ (1998b). 『불건전정보 심의기준 개선에 관한 공청회 음란물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서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_____ (1998c), 외국의 음란물에 대한 심의기준(<http://www.iccc.or.kr>)

조광희(1998). 심의기준을 정립할 경우 고려사항과 기준안에 대한 제언. 『불건전정보 심의 기준 개선에 관한 공청회음란물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서울: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신문>

내외경제신문 980702, "컴퓨터범죄 단일법안 마련" 동아일보 980513, "부산 초등학교교사, 인터넷에 음란소설 게재"

동아일보 981011, "미 인터넷 음란사이트 규제 : 미성년 접속허용뎀 실행"

동아일보 981104, "북 찬양 인터넷 사이트 총격 : 초기화면서 태극기 훼손"

문화일보 980521, "음란물 중독. 인간성 파괴: 성범죄 주범"

세계일보 980514, "인터넷에 각종 음란물 게재, 교사: 대학생-고교생 등 18명 적발"

세계일보 980620, "음란물 통신팜내 IMF후 대형화"

전자신문 980703, "개인 홈페이지 음란 정보를 찾아라"

조선일보 981202, "한글 인터넷 음란사이트 홍수"

중앙일보 980514, "빨간마후라서 여 화장실 물레카메라까지"

중앙일보 981008, “美하원, 인터넷 포르노 규제
법안 승인”

중앙일보 990203, “미국: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
위헌 판정”

한겨레신문 971217, “중고생 통신공간 정화 불끈”

<국외문헌>

Bland, Jana(1997). Educational Acceptable Use
Policies. Texas Center for Educational
Technology.

Burt, David(1997). In defense of filtering.
American Libraries, 28(7), 46-49

Carter, Kim(1998). How to Teach Students the
Rules of the Online Road. Technology &
Learning, 18(7), 18-23.

Mather, Mary Anne(1996). Exploring the
Internet Safely-What Schools Can Do.
Technology & Learning, 17(1), 38-43

Munro, Kathryn(1998). Monitor a Child's
Access. PC Magazine, 17(6), 185-186.

Rosen, feld, Louise B. & Holland, Maurita P
(1994). Automated Filtering of Internet
Postings. Online, 18(3), 27-31

Serim, Ferdi & Koch, Melissa(1996).
Netlearning: Why Teachers Use the
Internet.

Sebastopol: Songline Studio, Inc.

<인터넷 자료>

<http://cyberparents.icec.or.kr> 학부모정보감시단.

<http://cyc.youth.re.kr> 청소년정보감시단.

<http://kpd.sing-kr.org/cuac>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http://pics.microsys.com> PICS.

<http://www.cyberangels.org> Cyberangels.

<http://www.cyberpatrol.com> Cyber Patrol.

<http://www.eff.org> EEF.

<http://www.epic.org> Epic.

<http://www.icec.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nca.or.kr> 한국전산원.

<http://www.netnanny.com> Net Nanny.

<http://www.netparents.org> Net Parents.

<http://www.rsac.org> RSACI

<http://www.plustech.co.kr> 넷아거스.

<http://www.rain.org/~solidock/cybersit.htm>

<http://www.rice.edu/armadillo/Rice/Resources/acceptable.html> Armadillo's WWW Server.

<http://www.safesurf.com> Safesurf.

<http://www.solidoak.com/index.html> Cybersitter

<http://www.smartparent.com> Smart Parent.